목장 교재

2019년 8월 18일 (주일)

"경건에 이르는 길"

디모데전서4:1-16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망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달려 간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인간 이상의 지혜와 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을 받아야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딤전 4:1-3)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 하나는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을 해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가르침을 자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혹하는 영에게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화인이란 짐승의 등에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목장 주인이 자기 소의 등에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그 목장의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에는 마귀의 화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무리 경건을 떠들고 신앙을 떠들어도 결국은 마귀의 양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에 누구의 도장이 찍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장이 찍혀야 하고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전 4:4-5)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 대 생활강령에도 사도바울이 살전 5:16-18 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현 상황을 만족하고 받아 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즐기라는 말이다. 어려운데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의 상황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시켜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7-8)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무식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은 로마신화를 공부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을 완전히 등한시 할 수는 없지만 쓸데없는 신화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는데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전혀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챤들은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거의 광적으로 중독되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성숙도 훈련이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주일성수는 앰블란스 타고 가기전에 교회에 오라는 것도 훈련입니다. 직분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 번 정도는 교회에 오는것도 역시 훈련이 되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은 30% 정도이고 58%는 혼자서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결국 기독교는 유럽과 같이 명

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언어의 습관에 훈련**이 필요합니다.**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문제가 태산 같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의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혀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막 8:34)**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경건을 위해 순종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다스리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딤전 4:11-13)

사람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연령이나 관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나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다스릴 뿐입니다. 목사는 인간관계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딤전 4:14-16)

디모데가 장로회로부터 안수 받을 때 설교의 은사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오직 한권의 성경만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장을 나타내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자라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라지 않으면 교인들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영혼의 진보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할 뿐 아니라 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경건에 이르는 길'은 결국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건을 위한 훈련들(기도, 예배, 순종, 습관, 부지런함, 언어, 등)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나에게 요구 되는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 바울은 경건의 완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딤전 4:11-13)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